

한국 온천관광목적지의 수명주기

조성호* · 이경자**

관광지는 관광객에 의하여 이용이 지속될 때 관광목적지로서 그 생명력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그 관광지는 곧 쇠퇴해 버리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버틀러에 의해 제시된 관광목적지 수명주기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에 분포하는 온천관광지 중 현재 이용중에 있는 46개 온천지구를 대상으로 수명주기 단계와 분포특성 및 이용객의 행태를 분석하여 관광목적지가 쇠퇴하지 않고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대상으로 삼은 46개 온천지구 중 개발단계가 29개지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장단계 4개지구, 성숙단계 5개지구, 침체 및 쇠퇴단계 5개지구, 재할단계 3개지구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명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분포특성 및 이용객의 행태를 분석한 결과 지형적 위치, 접근도에 의한 분포특성이 수명주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광객들의 관광행태가 단일목적의 관광에서 다목적 관광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온천관광지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온천지구의 확대지정과 온천수 보존, 장기체류형 관광지로의 복합개발, 도로망의 확충, 주변관광자원의 활용, 공동급수의 시행, 관광특구의 지정 등 관광객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매력물을 꾸준히 개발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온천, 관광목적지, 수명주기

1. 서론

오늘날 온천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가고 있고, 종래의 요양과 휴양을 위한 탕치장의 기능에서 대도시 주민 및 기타 지방민을 위한 휴양적, 위락적, 스포츠적 기능을 첨가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국민의 여가형태 변화에 따라 온천지의 성격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지방화시대의 도래와 함께 지자체별로 지역적 차원에서 관광지 개발 및 관광촉진 전략에 부심하고 있다. 관광은 성장가능성이 있는 산업분야로서 지역사회에서는 대표적인 대규모의 투자이고 복합적인 구성체이므로 관광지가 쇠퇴하는 경우 문제는 심각해진다. 이러한 시점에서 관광목적지의 수명주기를 고찰하여 쇠퇴하는 관광지의 활

성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의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온천관광지 중 온천지구로 지정된 온천관광지를 대상으로 수온, 천질, 입지에 의한 분포특성 및 이용시설수, 온천관광객수, 개발시기에 따른 분포특성을 고찰한다. 그리고 각 온천별 수명주기의 단계를 구분하고, 분포특성과 수명주기단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수명주기 단계별 특성과 단계전환의 요인을 고찰한다. 그리고 이러한 수명주기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관광객의 행태를 분석함으로써 수명주기단계와 관광객의 행태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관광목적지 수명주기단계에 따른 관광마케팅전략을 강구함으로써 관광목적지가 쇠퇴하지 않고 현재보다 더

* 효성가톨릭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 효성가톨릭대학교 강사

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온천관광지 개발 정책연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의 연구범위는 전국 온천관광지 중 1996년말 온천지구로 지정된 온천관광지 중 현재 이용 중인 온천관광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관광목적지 수명주기에 관한 이론적 배경은 버틀러 및 제학자들의 관광목적지 수명주기이론과 관광목적지 수명주기이론의 근간이 되는 계통수명주기이론을 통해 고찰하였다. 관광목적지 수명주기에 관한 실증적 분석은 행정관서에서 발행하는 각종 통계자료와 온천지역 관리관서에서 발행하는 제자료를 정밀분석하였다. 또한 통계자료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실제 연구지역을 방문하여 청취 및 관찰을 통해 실증자료를 수집하였다. 관광목적지 수명주기의 판단은 시간과 이용자수를 변수로 이용하였으며, 또한 관광목적지의 수명주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관광객의 행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우리 나라 온천의 이용행태는 연구의 편의상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설문조사대상 선정은 임의로 추출하여 설문지를 배포·작성토록 하였다. 조사시간은 1997년 8월 3일~8월 9일까지 1주일간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는 200매를 배포하였으나 180(90.0%)매가 회수되었고, 이중 이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160매만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그리고 수명주기단계별 사례지역으로는 부곡은천과 수안보온천지역을 선정하였다. 이들 두 지역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부곡은천은 침체 및 쇠퇴단계, 수안보는 재황단계로 수명주기단계에 따른 특성을 잘 나타낼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부곡은천은 1997년 10월 5일, 수안보온천은 10월 12일 각 1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부곡 70매, 수안보 70매를 각각 배포하였으며, 이 중 부곡 55매(78.5%), 수안보 70매(100.0%)가 회수되었고, 회수된 설문지 중 내용 검토 결과 자료로서의 이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부곡 47매, 수안보 64매만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설문의 문항은 3지역 모두 12문항으로 관광지에 관한 속성은 20개, 관광객에 관한 것은 21개 속성으로 분류하였다. 응답방법은 온천관광지를 직

접 기록하게 하는 방법과 선택형의 2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관광객의 관광속성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은 태도측정이나 마케팅연구에서 많이 이용되는 리커트(Likert) 척도법 중 Five Point Scale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에는 SAS패키지를 이용하였으며, 분석모형으로는 각 항목에 대한 빈도와 비율을 구하고, 응답자의 속성에 따른 관광행태와 지역간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χ^2 -test, T-test, ANOVA(분산분석)를 실시하였다.

2. 한국 온천의 수명주기단계와 분포특성

1) 온천관광지 개발

온천이 우리 나라에서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 갈 수 있겠으나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여가시간의 증대 등 관광여가활동의 변화와 함께 우리나라의 온천관광지는 종래의 치료와 요양을 위한 단순적 기능에서 국민여가활동을 위한 휴양적 위락적 기능이 부가된 종합형 관광지를 거쳐 온천관광도시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 국민관광행태의 다양화와 관광수요의 증가에 따라 온천관광지도도 급격히 증가하여 1981. 3. 2. 온천법 제정당시 14개 지구에 불과하던 것이 80년대 후반부터 일기 시작한 온천개발붐에 따라 주로 민간인에 의해 탐사·개발되기 시작하여 1985년 말에는 18개지구가 온천지구로 지정되었고, 1990년 말에는 온천지구가 부산(2), 광주(2), 대전(1), 경기(2), 강원(2), 충북(4), 충남(5), 전북(5), 전남(3), 경북(8), 경남(7)로 85년 말보다 23개지구가 증가하여 총 41개 지역이 온천지구로 지정되었다. 그리하여 1997년 3월말 현재에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93개 지구가 온천지구로 지정되어 이 중 46개 지구가 이용중에 있고, 47개지구가 개장 예정이거나 개발중에 있다. 한편 지역적으로도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에 고루 분포하게 되었다(그림 1).

표 1. 지역별 온천분포(1997. 3.)

구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운영중	2	1	-	1	1	2	5	3	5	6	3	13	4	-	46
개발중	-	-	1	1	-	8	5	6	5	6	1	8	4	2	47
계	2	1	1	2	1	10	10	9	10	12	4	21	8	2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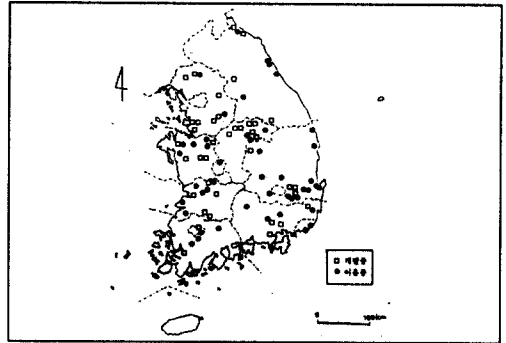


그림 1. 온천지구의 분포

자료: 온천(1995), 내무부(1997)에 의해 재작성.

2) 한국온천의 분포특성

(1) 지형적 위치의 특성

지형적 위치의 분포특성을 살펴보면 평지입지형이 온양온천을 비롯해 21개구(45.6%)를 차지하며, 산악입지형이 지리산온천을 포함해서 11개 지구(23.9%), 구룡성 산지형이 8개 지구(17.4%), 분지형이 부곡 1개 지구(2.2%), 해안입지형이 해운대를 비롯한 5개 지구(10.9%)를 나타내고 있다(표 2). 이러한 지형적 위치에 있어서의 분포특성은 접근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타관광자원과의 연계성과도 관련을 가짐으로써 관광객의 견

온천이 많으며, 천질(泉質)은 한국에서 개발된 온천은 북한의 일부 온천을 제외하면 비화산성온천(非火山性溫泉)으로 알려져 있다(온천, 1995).

한국자원연구소가 1987년 2월부터 1994년 12월까지 발간한 온천공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수질은 단순천(單純泉)으로 분류된 것이 83.6%로 압도적으로 많다. 다음으로 식염천이 8.7%, 유황천이 2.7%, 기타 5.0%(중조천, 중탄산토류천, 황산염천)를 점유하며 천질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3) 수온에 의한 분포특성

표 2. 지형적 위치의 분포특성

구분	온천지구명	계(%)
평지입지형	김천, 문경, 홍성, 약산, 아산, 경주, 보문, 돈산, 청도, 원암, 홍천, 왕궁, 용암, 가조, 온양, 상대, 동래, 이천, 도고, 유성, 덕산	21 (45.6)
산악입지형	지리산, 대둔산, 설악프라자, 단양, 무등산, 오색, 척산, 덕구, 마금산, 백암, 수안보	11 (23.9)
해안입지형	영일만, 포항, 변산, 울산, 해운대	5 (10.9)
구룡지형	담산, 화순, 도곡, 죽림, 신북, 도산, 석정, 화심	8 (17.4)
분지형	부곡	1 (2.2)

인력에 영향을 주게 된다. 아울러 이것은 관광지의 수명주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2) 泉質에 의한 分布特性

온천수의 특성으로는 알카리성(PH 7.7~9.5)

온천수의 수온에 의한 분포특성을 살펴보면 중부지역의 온천군보다는 남부의 것들이 더욱 고온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3). 즉 최고수온을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 70℃ 이상을 나타내는 온천은 부곡온천(54~78℃) 1개지구이며, 60℃ 이상을 보

한국 온천관광목적지의 수명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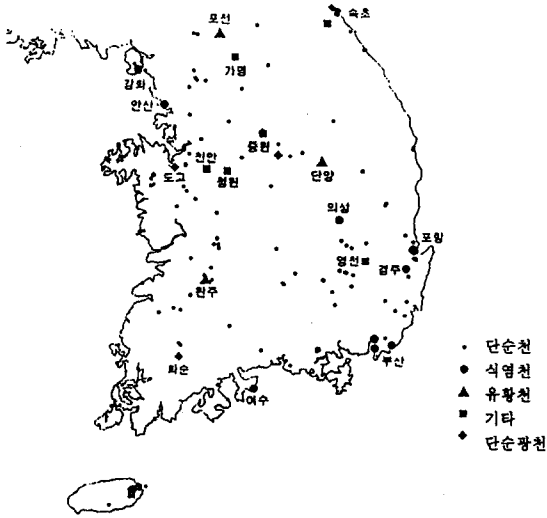


그림 2. 천질에 의한 온천분포

주: 천질의 분류기준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통용되고 있는 용해성분에 의한 경험적인 분류기준에 의한 것임.
 자료: 온천(1995)

이 온천은 동래, 해운대, 백암 3개지구이다. 50℃ 이상은 유성, 수안보, 온양, 마금산, 척산 5개 지구, 40℃ 이상을 나타내는 지역은 원암, 설악프라자, 덕산, 덕구, 포항, 금호랜드, 용암 7개 지구이며, 30℃ 이상이 29개 지구, 25~29℃를 나타내는 온천이 48개 지구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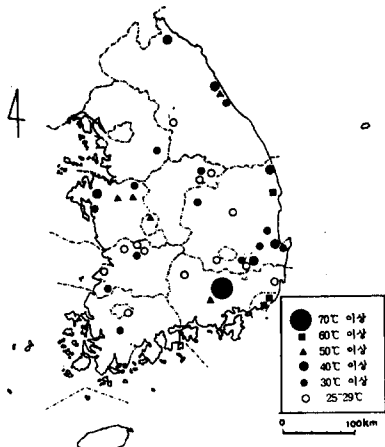


그림 3. 수온에 의한 분포

(4) 접근도에 의한 분포특성

대도시 또는 수요지와 의 접근도에 의한 분포특성을 살펴보면 대도시에 입지한 온천으로는 해운대, 동래, 유성, 무등산 4개 지구(8.7%)가 있으며, 대도시 근교에 입지한 온천은 상대, 약산 2개 지구(4.4%)가 있다. 한편 소비지로부터 30km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온천으로는 화순을 비롯한 6개 지구(13.0%), 60km 이내가 이천, 부곡을 비롯한 11개 지구(23.9%), 60km 이상이 오색을 비롯한 23개 지구(50%)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특성은 관광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접근도의 차이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이것은 또한 온천관광지의 수명주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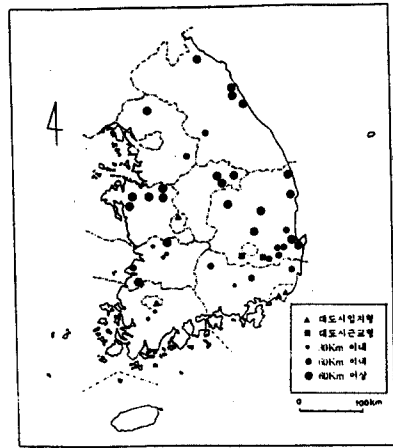


그림 4. 접근도에 의한 분포

주: 소비지란 관광을 수요와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보아 수요자인 관광객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주요도시를 말함.

(5) 개발시기별 분포특성

개발시기별 접근도에 의한 분포특성을 살펴보면 85년 이전에 개발된 것은 16개 온천지구 중 대도시입지형이 해운대, 동래, 유성 3개 지구(18.8%), 대도시근교형이 상대 1개 지구(6.2%), 30km 이내가 화순, 마금산 2개 지구(12.5%), 60km 이내가 이천, 부곡 2개지(12.5%), 60km 이상이 백

암을 비롯한 8개 지구로 나타났다. 다음 86~90년에 개발된 온천들은 13개 지구 중 대도시입지형이 무등산 1개 지구(7.7%), 30km 이내가 2개 지구(15.4%), 60km 이내가 가조를 비롯한 5개 지구(38.5%), 60km 이상이 지리산을 비롯한 5개 지구(38.5%)이며, 90년 이후에 개발된 것은 17개 온천지구 중 대도시근교형이 약산 1개 지구(5.9%), 30km 이내가 화심, 왕궁 2개 지구(11.8%), 60km 이내가 용암을 비롯한 4개 지구(23.5%), 60km 이상이 문경을 비롯한 10개 지구(58.8%)를 각각 보이고 있다(그림 5).

그림 5. 개발시기별 접근도에 의한 분포

온천의 개발시기와 수온과의 분포특성을 살펴보면 85년 이전에 개발된 온천은 18개 온천지구 중 최고수온이 70℃ 이상인 것은 부곡 1개 지구(5.5%)이며, 60℃ 이상이 3개 지구(16.7%), 50℃ 이상이 5개 지구(27.8%), 40℃ 이상이 1개 지구(4.3%), 30℃ 이상이 6개 지구(26.1%), 25~29℃가 2개 지구(11.1%)로 30℃ 이상이 16개 지구(69.6%)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90년 이후에 개발된 온천은 52개 온천지구 중 40℃ 이상이 4개 지구(7.7%), 30℃ 이상이 18개 지구(34.6%), 25~29℃가 30개 지구(57.7%)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그림 6).

즉 개발시기가 빠른 온천들이 고온을 나타내는데 비해 최근에 개발된 온천들은 대체로 낮은 수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포특성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최근에 개발된 온천들은 대부분 인공굴착에 의해 개발된 관계로 온천법에 근거하여 수온이 25℃ 이상만 유지되면 온천으로 개발하는 경향

그림 6. 개발시기별 수온의 분포

이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개발시기별로 연평균이용객 분포를 보면 85년 이전에 개발된 온천은 16개 온천지구 중 100,000명 이하가 화순온천 1개 지구(6.3%), 100,001~500,000명이 오색, 상대, 마금산 3개 지구(18.7%), 500,001~1,000,000명이 이천, 척산, 덕구, 3개 지구((18.7%), 1,000,001~5,000,000명이 부곡, 해운대, 도고, 수안보, 덕산, 백암, 동래, 은양 등 8개 지구(50%), 5,000,001명 이상이 유성 1개 지구(6.3%)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다음 86~90년에 개발된 온천들은 13개 지구 중 100,000명 이하가 변산 1개 지구(7.7%), 100,001~500,000명이 석정을 비롯한 7개 지구(53.8%), 500,001~1,000,000명이 아산, 경주, 지리산 3개 지구(23.1%), 1,000,001~5,000,000명이 죽림, 도곡 2개 지구(15.4%)로 나타났다. 그러나 90년 이후에 개발된 온천들은 17개 지구 중 보문과 용암을 제외한 15개 지구(88.2%)가 500,000

그림 7. 개발시기별 연평균이용객 분포

한국 온천관광목적지의 수명주기

명 이하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용시설수의 증가와 함께 온천객수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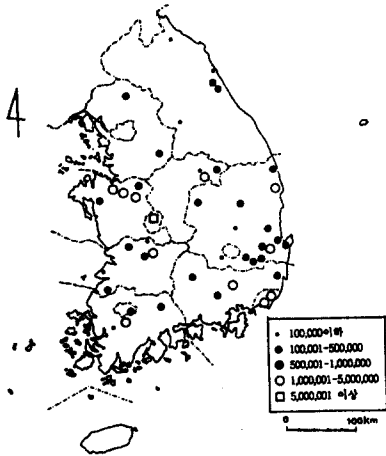


그림 8. 연평균 이용객분포

3) 한국온천의 이용 행태

관광목적지의 수명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온천객의 이용행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¹⁾.

(1) 온천관광지의 지명도

인간의 관광행위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심·호기심에서 행해질 수 있겠지만 관광객의 성격유

형에 따라 이튿날 곳이나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곳을 관광목적지로 선택하는 안정성 추구자도 많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으로 삼은 온천관광지 중 어느 온천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지 그 지명도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문의 응답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곡(134), 백암(90), 수안보(79), 상대(68), 온양(50), 덕구(40), 유성(39) 순으로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온천관광지는 80년대 이후 온천개발붐에 힘입어 개발된 신흥온천관광지보다는 아직까지는 역사가 오래된 온천들의 지명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지명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관광객들에게 인지도가 높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향후 관광을 행할 때 관광목적지로서 선택될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지명도가 수명주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온천관광지의 방문빈도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관광지의 방문빈도는 관광목적지의 수명주기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온천관광지 중 어느 온천관광지를 많이 이용하며, 또한 과거에 이용했던 온천과 현재 많이 방문하는 온천을 조사한다는 것은 온천관광목적지의 수명주기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방문한 온천관광지의 방문빈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부곡(107명), 백암(62명), 상대(51명), 수안보

표 3. 온천관광지의 지명도

(단위 : 명)

온천명	빈도수	온천명	빈도수	온천명	빈도수	온천명	빈도수
부곡	134	동래	36	해운대	8	도곡	2
백암	90	약산	29	오색	5	설악프라자	2
수안보	79	경주	21	문경	4	울산	2
상대	68	가조	19	영일만	3	화심	2
온양	50	탑산	19	덕산	2	화순	1
덕구	40	지리산	15	마금산	2	도산	1
유성	39	도고	14	척산	2	무동산	1
용암	38	학일	12	포항	2	단양	1

(41명), 용암(28명), 온양(27) 순이었고, 그 외에 최근에 개발된 탑산(10명), 약산(17명), 가조 온천(13명)과 같은 신흥온천들의 빈도수도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한편 방문 횟수를 조사한 결과 방문빈도가 잦은 온천지역을 보면 백암과 부곡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대구에서 거리상으로 가까운 곳에 입지한 신흥온천관광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온천에 대한 인식의 변화, 여성운전자의 증가, 관광비용과 시간의 절약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여 온천객들의 관광행태가 교통이 편리하고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9. 대구시민의 온천별·계절별 선호도

(3) 온천별 여행시기

대구지역 주민들의 온천별·계절선호도는 해운대는 여름(60.4%)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졌고, 이천(58.1%), 오색(47.8%), 유성(37.5%)은 가을을, 도고(36.9%), 백암(36.9%), 수안보

(36.2%)는 겨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구에서 근거리에 입지한 상대, 용암, 부곡온천은 수시로 방문한다고 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상대(63.1%), 용암(58.1%), 부곡(44.4%)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9). 즉 해운대는 해수욕을 겸할 수 있는 여름의 선호도가 높고, 오색의 경우 단풍구경철인 가을을 선호한다는 것은 관광객들의 관광행위가 온천만을 위한 단일목적의 관광보다는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다목적관광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온천관광지 선택시 각 매체별 정보제공 정도
관광객들의 관광지 선택행위에 있어 관광정보의 입수 경로를 알아보기 위한 각 매체별 정보제공 정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가족이나 친구(평균값: 3.75)로부터 정보를 가장 많이 얻고 있으며, 다음 여행책자(3.43), 텔레비전(2.74), 신문(2.64), 여행사(2.33), 라디오(2.04) 순으로 나타났다(표 4). 이것은 관광에 관한 정보의 확산은 대중매체에 의존하기보다는 구전에 의한 정보의 보급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온천관광지 선택행위에 관한 속성

관광객의 관광지 선택행위는 관광지의 수명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광객의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21개의 문항을 설정하여 리커트 척도법 중 Five Point Scale로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온천관광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온천수의 수질(평균값 : 3.46)이며, 기본

표 4. 대구시민의 각 매체별 정보제공 정도

(단위: 명, %)

그림 10. 온천관광지 선택행위에 관한 속성

전환(3.40), 가족단위의 여행이 가능한 곳(3.24), 온천수의 수온(3.21), 지명도(3.16), 교통의 편리(3.01)가 선택행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0).

4) 온천관광지 수명주기

(1) 수명주기의 유형 및 요인
지금까지 관광지의 수명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 온천관광지의 분포특성과 관광객의 이용행태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장에서는 남한에 분포하는 온천관광지 중 온천지구로 지정되어 현재 이용중인 46개 온천지구를 중심으로 수명주기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분석의 단위는 각 온천관광지를 대상으로 하여 연도별 관광객수를 이용하였다. 즉 수명주기 유형은 시간과 관광객수의 관계로 전기간의 전반적인 추세곡선과 평균성장율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수

표 5. 온천지구별 수명주기 단계

명주기의 단계는 버틀러의 수명주기 단계와 산촌의 온천의 발전단계틀 기준으로 하였고, 각 단계의 구명은 폴리와 쿡에 의해 제시된 관광객수의 비율 변화에 기초를 두었다.

각 온천관광지별로 추세분석(trend analysis)을 한 결과 대부분이 1980년대 후반 온천개발됨에 힘입어 개발된 관계로 성장국면을 나타내는 온천관광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체단계 내지는 성숙국면 나아가 쇠퇴국면을 나타내는 온천관광지는 소수에 불과했다. 이들 46개 온천지구 중 개발단계가 29개 지구(63.0%), 성장단계 4개 지구(8.7%), 성숙단계 5개 지구(10.9%), 침체단계 내지는 쇠퇴단계 5개지구(10.9%)로 나타났으며, 침체단계에서 쇠퇴단계로 이행되지 않고 재활단계로 들어섰다고 판단되는 것으로는 수안보, 유성, 덕산온천 3개 지구(6.5%)로 나타났다(표 5).

(2) 수명주기단계별 분포특성

수명주기단계와 지형적 위치의 특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수명주기단계가 높은 온천들은 대부분 평지 또는 산악입지형을 보이고 있고, 개발단계에 있는 신흥온천들은 평지입지형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나 지형별로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표 6).

이러한 지형적 위치의 특성에 따라 분류된 유형별로 온천관광지의 수명주기 단계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평지입지형

이 유형은 지형적 위치의 특성에 따른 분류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46개 온천지구 중 21개 지구(45.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비록 같은 평지입지형이라 하더라도 또 다른 분포특성 및 인문적·사회적 조건의 차이에 따라 수명주기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11). 대표적인 예로 문경, 용암, 온양, 이천, 덕산온천을 들 수 있다.

② 산악입지형

지형적 위치의 특성상 산지에 입지하는 유형으로 11개 지구(23.9%)가 이 유형에 속하고 있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명주기 유형 또한 다양하다(그림 11). 대표적인 예로 지리산, 오색, 마금산, 백암, 수안보온천을 들 수 있다.

③ 해안입지형

온천이 해안에 입지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유형이다. 대부분의 온천관광지가 겨울을 전후하여 이용객이 많은데 비해 이 지역은 해안이라고 하는 지형적 위치의 특성으로 인해 여름이용객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해운대, 영일만, 포항, 변산, 울산

표 6. 수명주기단계별 지형적 위치 특성

구 분	개발 단계	성장 단계	성숙 단계	침체 및 쇠퇴단계	재활 단계	계(%)
평지입지형	김천, 문경, 홍성, 약산, 아산, 경주, 보문, 돈산, 청도, 원암, 홍천, 왕궁	용암, 가조	온양, 상대	동래, 이천, 도고	유성, 덕산	21 (45.6)
산악입지형	지리산, 대둔산, 단양 설악프라자, 무등산	오색, 척산	덕구, 마금산	백암	수안보	11 (23.9)
해안입지형	영일만, 포항, 변산, 울산		해운대			5 (10.9)
구릉지형	탐산, 화순, 도곡, 죽림, 신북, 도산, 석정, 화심					8 (17.4)
분지형				부곡		1 (2.2)
계	29	4	5	5	3	46(100.0)

한국 온천관광목적지의 수명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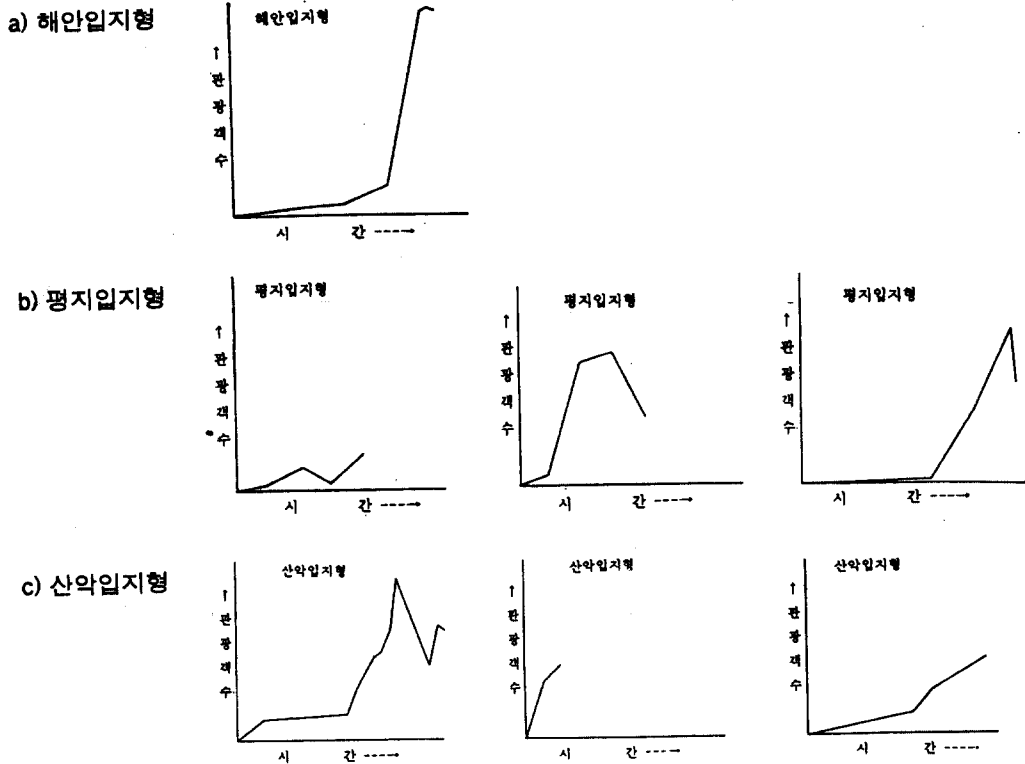


그림 11. 수명주기 유형

온천이 이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그림11).

④ 분지형

분지형이란 지형적 위치의 특성상 분지에 입지한 온천을 말하며 부곡온천을 예로 들 수 있다.

수명주기단계별로 수온의 분포특성을 살펴보면 개발중에 있는 온천은 47개 지구 중 30개 지구(63.8%)가 25℃~29℃, 16개 지구(34.0%)가 30℃를 나타내고 있다. 또 개발단계에 있는 온천은 29개 온천지구 중 15개 지구(51.7%)가 25℃~29℃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30℃ 이상이 11개 지구(37.9%)를 나타내고 있고, 40℃ 이상은 원암, 포항, 설악프라자 3개 지구이다. 성장단계에 속하는 온천들은 가조온천 25℃~29℃, 오색온천 30℃ 이상, 용암 40℃ 이상, 척산 50℃ 이상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성숙단계의 온천들은 상대온천을 제외한 덕구, 마금산, 온양, 해운대 4

개지구가 40℃~60℃ 이상의 고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침체 및 쇠퇴단계에 속하는 부곡온천은 70℃ 이상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수온을 나타내며, 동래, 백암 역시 60℃ 이상이며, 재활단계에 속해 있는 덕산 40℃ 이상, 유성, 수안보 60℃의 수온 분포이다. 지금까지 수명주기단계와 수온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수명주기단계가 높은 온천일수록 고온의 수온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포특성은 수명주기단계와 개발시기와는 깊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수명주기단계가 낮은 온천들은 근래에 개발된 신흥온천들로 온천수의 수온보다는 접근도나 규모, 시설 측면에 더 중점을 두고 개발하기 때 문이라 할 수 있다.

개발시기와 수명주기단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개발시기가 오래된 온천들은 대부분 높은 수명주기단계를 보여준다. 즉 85년 이전에

온천지구로 지정된 온천은 18개 온천지구중 개발 단계를 나타내는 것은 화순온천 1개지구이며, 오색, 척산은 성장단계, 해운대, 온양, 상대, 덕구, 마금산은 성숙단계, 동래, 이천, 도고, 백암, 부곡은 침체 및 쇠퇴단계, 유성, 덕산, 수안보는 재활 단계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85년 이전에 온천지구로 지정된 화순온천이 아직까지 개발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앞의 분포특성에서 살펴보았듯이 지형적 위치, 접근도, 수온, 천질 등에 있어 별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지 않아 관광객을 견인할 만한 관광매력도가 낮기 때문이다.

이용시설규모와 수명주기단계와의 분포특성을 살펴보면 수명주기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이용시설 규모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는 당연한 사실로 관광의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볼 때 일정수준까지는 관광객이 증가하다가 관광매력도가 감소하게 되면 침체단계로 접어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용시설수는 현상태로 유지되거나 아니면 감소하게 된다. 그리하여 계속적인 침체가 나타나면 쇠퇴 단계로 이행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고 새로운 관광매력도를 증가시켜 관광객을 끌어당긴다면 재활 단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접근도에 따른 수명주기 단계별 분포특성을 살펴보면 대도시에 입지한 4개 온천은 각기 다른 수명주기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 즉 무등산은 개발단

30km 이내에 위치한 죽림, 화심, 왕궁, 화순, 도곡은 개발단계, 마금산은 성숙단계이며, 60km 이내에 위치한 11개 온천지구 중 흥천, 보문, 변산, 경주, 탐산, 청도, 울산 등 7개 지구는 개발단계, 용암과 가조는 성장단계, 이천, 부곡은 침체 및 쇠퇴 단계를 나타내고 있다. 끝으로 소비지 또는 대도시로부터 60k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한 23개 온천 지구들은 개발단계에 속하는 것이 신북을 비롯한 15개 지구, 성장단계가 오색, 척산 2개 지구, 성숙단계가 온양, 덕구 2개지구, 침체 및 쇠퇴단계가 도고, 백암 2개 지구, 재활단계가 수안보, 덕산 2개 지구로 나타났다.

위에서 살펴본 이러한 분포특성 중 대도시입지형은 온천이 대도시에 입지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유형이다(그림 12). 이 경우 온천의 수명주기는 입지한 대도시의 개발정책이나 도시화의 진행과정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는 동래, 해운대, 유성, 무등산온천을 예로 들 수 있다. 한편 대도시 근교형은 인접한 대도시의 관광여건 변화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유형이다. 이 유형의 특징은 온천관광객수에 있어서 초기단계에 이용객이 많으며,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점진적인 증감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그림 13). 상대온천, 약산온천을 예로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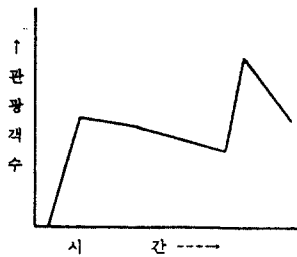


그림 12. 대도시입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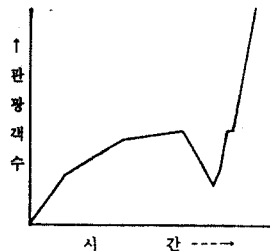


그림 13. 대도시 근교형

계를 보여주고, 해운대는 성숙단계, 동래는 침체 및 쇠퇴단계, 유성은 재활단계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대도시 근교에 입지한 약산과 상대온천은 개발단계와 성숙단계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3. 사례지역 연구

수명주기단계상 쇠퇴단계와 재활단계로 분류된

한국 온천관광목적지의 수명주기

부곡온천과 수안보온천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관광의 주체가 되는 관광객의 행태와 관광목적지의 수명주기 단계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으며,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사례연구 (1)-부곡

수명주기 단계상 쇠퇴단계로 분류된 부곡온천 관광객의 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곡을 찾은 관광객의 경우 지명도 조사에서는 부곡(39)과 백암(39)이 같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다음 수안보(31), 동래(24), 유성(23), 마금산(19), 온양(18)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온천관광지에 대한 지명도는 인간의 관광행태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관광목적지 수명주기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부곡을 찾은 관광객의 경우 이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온천은 부곡(41명), 백암(26명), 수안보(15명), 지리산(10명) 순으로 오래된 온천들의 방문경험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나 용암, 죽림, 무등산, 지리산, 약산과 같은 신흥온천지도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수명주기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예견할 수 있다.

부곡을 찾은 온천관광객들의 온천별·계절별 여행시기는 봄을 선호하는 온천은 동래(55.3%), 유성(44.7%), 온양(46.8%), 덕산(40.7%), 상대(61.7%), 용암(51.1%), 마금산(48.9%) 온천이었으며, 여름을 선호하는 온천은 해운대(66.0%) 온천 뿐이었고, 가을을 선호하는 온천은 이천(29.8%), 오색(36.2%), 수안보(51.1%) 온천으로 나

그림 14. 온천별·계절별 선호도

타났다. 다음 겨울을 선호하는 온천은 처산(55.3%), 도고(40.4%), 백암(55.3%), 오색(36.2%) 온천으로 나타났으나, 이천(27.7%), 덕산(34.0%)도 겨울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수시로 방문하는 온천은 부곡이 70.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림 14). 즉 해운대는 해수욕을 겸할 수 있는 여름철을, 오색, 수안보는 단풍구경을 할 수 있는 가을을, 인근에 특별한 관광자원이 없는 부곡은 수시로 방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볼 때 관광객들의 관광행위는 온천만의 단일 목적의 관광보다는 다목적관광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광객들의 관광지 선택행위에 있어 관광정보의 입수 경로를 알아보기 위한 각 매체별 정보제공 정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정보를 가장 많이 얻고 있으며, 다음으로 여행책자, 텔레비전, 신문, 여행사, 라디오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라디오는 평균값이 1.73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관광지 선택행위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15).

온천지구의 속성에 관한 질문의 응답결과는 연

표 7. 부곡온천 관광객의 온천관광지 지명도

(단위 : 명)

2) 사례연구(II)- 수안보

사례지역으로 선정된 수안보온천 관광객의 행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문의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안보온천을 찾은 온천관광객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온천관광지의 지명도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문의 응답결과는 수안보(62), 백암(47), 부곡(38), 유성(32), 온양(26)의 빈도분포를 보이고 있다(표 8). 이와 같이 관광객들에게 지명도가 높은 온천들은 과거에 방문한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미래에 방문할 가능성도 그렇지 않은 온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온천관광객의 경우 타 관광목적지와는 달리 연령이 높은 안정성 추구자들의 방문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수안보온천을 방문한 관광객의 온천별, 계절별 선호도는 <그림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봄을 선호하는 온천은 부곡(31.7%), 상대(33.3%), 용암(36.5%), 마금산(34.9%)으로 나타났으며, 여름은 동래(46.0%), 해운대(63.5%), 유성(28.6%)으로 나타났고, 가을은 이천(51.6%), 오색(61.9%), 척산(43.3%), 수안보(42.2%)로 나타났고, 그리고 겨울을 선호하는 온천은 백암(41.3%), 척산(38.3%), 도고(33.3%), 온양(25.4%)으로 척산은 가을과 겨울, 유성과 온양은 여름, 가을, 겨울이 비슷한 선호도를 나타냈으나 해운대는 여름이 63.5%, 오색과 이천은 가을이 각각 61.9%, 51.6%를 보임으로써 두더러진 계절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부곡의 경우 봄을 선호하는 이유는 4월 초에 개최되는 벚꽃축제에 참가한 관광

그림 15. 각 매체별 정보제공정도

구대상으로 삼은 46개 온천지구 중에서 응답자들이 수질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온천은 부곡(36), 백암(18), 수안보(13) 순으로 나타났으며, 다음 교통이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온천은 부곡(24), 수안보(10), 마금산(4), 경주(3), 숙박시설이 좋은 온천지구로는 부곡(20), 수안보(10), 경주(6), 백암(5)지역으로 나타났다.

관광객의 관광지 선택행위는 관광지의 수명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광객의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21개의 문항을 설정하여 리커트 척도법 중 Five Point Scale로 조사하여 빈도 및 비율조사, T-test 및 χ^2 검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온천관광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온천수의 수질(평균값: 4.4)이며, 온천수의 수온(4.18), 건강(3.93), 거주지에서의 접근도(3.93), 교통조건(3.87), 지명도(3.72)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수안보온천 관광객의 온천관광지 지명도

(단위 : 명)

자원과는 달리 온천 그자체가 지닌 요양과 보양, 휴양적기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4. 결론

관광지는 관광객에 의하여 이용이 지속될 때 관광목적지로서 그 생명력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그 관광지는 곧 쇠퇴해 버리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버틀러에 의해 제시된 관광목적지 수명주기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에 분포하는 온천관광지 중 온천지구로 지정되어 현재 이용중에 있는 46개 온천지구를 대상으로 수명주기단계와 단계별 분포특성 및 이용객의 행태를 분석하여 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분석대상으로 삼은 46개 지구의 수명주기단계를 분석한 결과 개발단계가 29개 지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장단계 4개 지구, 성숙단계 5개 지구, 침체 및 쇠퇴단계 5개지구이며 재할단계가 3개 지구로 나타났다. 지형적 분포특성은 평지와 산악입지형이 많으며, 다음이 구릉지형, 해안입지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천수의 천질은 단순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식염천, 유황천은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온천수의 수온은 25℃~78℃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개발연대가 오래된 온천들의 수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특성과 수명주기단계와의 관계를 고찰한 결과 지형적 위치, 접근도에 의한 분포특성이 수명주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산악입지형은 교통이 불편한 관계로 새로운 도로의 확·포장이 이루어질 때까지 수명주기단계가 느리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천관광객들이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도가 높은 대도시 근교형을 선호하게 됨으로써 이들 신흥온천들의 성장은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천관광목적지 수명주기에 있어서 단계전환의 요인은 주로 관광지를 구성하고 있는 관광관련 시설 및 도로망의 확충, 새로운 관광매력물의 등장, 교통수단의 발달,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관광객의 행태변화 등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쇠퇴단계에 있는 관광목적

그림 16. 수안보온천 관광객의 온천별·계절별 선호도

객들이 부곡을 경유지로서 온천욕을 겸하기 때문이며, 그의 계절적 선호도는 앞의 관광객의 행태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각 온천지구의 속성에 관한 질문에서는 연구대상으로 삼은 46개 온천지구 중에서 응답자들이 수질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온천은 수안보(38명), 백암(34명), 부곡(13명), 온양(9명)순이었으며, 교통이 편리하다고 생각한 온천은 수안보(17명), 부곡(12명), 동래(7명), 해운대(7명), 경주(6명), 유성(5명)순으로 나타나 부곡을 찾은 온천객과는 차이를 나타냈다.

온천관광지 선택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광속성들을 조사한 결과 온천수의 수질(평균값 : 3.96), 수온(3.39), 기분전환을 위해서(3.35), 숙박시설(3.33), 단체관광(3.19) 주변지역의 자연경관(3.04)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7). 특히 온천수의 수질과 수온, 기분전환, 등이 중요한 선택요인이 되는 것은 타관광

그림 17. 관광객의 관광지 선택행위에 관련된속성

지들을 재빨단계로 전환시키는 요인은 스키장의 개장, 타 관광자원과의 연계 및 접근성, 도로의 확포장, 온천축제개최 등 새로운 관광매력물의 증가로 볼 수 있다.

지명도가 높은 온천관광지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도시근교의 신흥온천들의 이용빈도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것은 온천객의 행태가 접근도가 높은 대도시 근교형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반영해 주는 것이다. 온천별·계절별 선호도는 온천이 입지한 지역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일목적의 관광지보다는 다목적 관광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지에 대한 정보는 대중매체보다는 구전에 의해 입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객들이 온천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온천수의 수질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천의 목적은 건강과 기분전환을 위해서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온천자체가 본래 요양과 치료의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상의 내용으로 알 수 있듯이 종래의 요양과 휴양을 위한 탕치장의 기능을 가진 숙박시설 위주의 온천보다는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이 잘 정비된 리조트의 성격이 강한 곳일수록 온천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관광객들의 관광행태가 단일목적의 관광에서 다목적관광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쇠퇴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온천관광지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온천지구의 확대지정과 온천수 보존, 장기체류형 관광지로의 복합개발, 온천축제 개최 및 주변관광자원의 활용, 공동급수의 시행, 관광특구의 지정 등 관광객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매력물을 꾸준히 개발해야 할 것이다.

註

- 1) 설문조사대상선정은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임의로 추출하여 설문지를 배포·작성토록하였으며, 조사기간은 1997. 8. 3~8. 9일까지 1주일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200매를 배포하였으나 180매가 회수되었

고, 이중 자료로서의 이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160매만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文 獻

- 金洪雲·金思永, 1994, 觀光資源論, 螢雪出版社, 서울.
- 오상락, 1984, 마아케팅관리론, 박영사, 서울.
- 金奭德, 1986, PRODUCT LIFE CYCLE理論에 의한 韓國 輸出商品 「페틴」에 대한 考察,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金炳文, 1977, 白岩溫泉 觀光地의 地域分析과 開發, 觀光學, 韓國觀光學會, 創刊號, 33~52.
- 김병문, 1989, 水安堡溫泉觀光産業의 活性化方案에 關한 研究, 社會科學研究, 江原大學校 論文集 29, 104~143.
- 金相勳, 1985, 韓國溫泉觀光地의 形成過程과 機能에 關한 研究, 慶熙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元學喜, 1984, 水安堡 溫泉觀光聚落의 形成과 構造, 地理學研究, 9, 419~431.
- 鄭承鎰, 1979, 慰樂空間으로서의 釜谷溫泉, 韓國 社會事業大學 論文集, 9, 125~145.
- 韓炳善, 1992, 觀光地에 대한 認知·選好·行態論的 研究動向, 觀光地理學, 2, 223~240.
- 淺香辛雄·山村順次, 1974, 觀光地理學, 大明堂, 東京.
- 山村順次, 1990, 觀光地域論-地域形成と環境保全-, 古今書院, 東京.
- 山村順次, 1973, 溫泉地の發達過程と開發, 地理, 18(3), 64~73.
- 山村順次, 1986, 韓國釜谷溫泉觀光地の開發と地域社會の變化, 新地理, 34, 12~22.
- 白坂著, 1976, 野澤溫泉におけるスキ-場の立地と發展 -日本におけるスキ-場の地理學的研究 第1報-, 地理學評論, 49(6), 341~360.
- Bulter, R.W., 1980, The concept of a tourist area cycle of evolution: Implications for management of resources, *Canadian Geographer*, 24, 5~12.
- Bulter, R.W. 1985, Evolution of tourism in

- Scottish Highlands, *Annals of Tourism Research*, 12, 371~391.
- Choy, D.J.L., 1992, Life cycle models for Pacific Island destinations, *Journal of Travel Research*, Winter, 26~31.
- Cooper, C. and Jackson, S., 1989, Destination life cycle: The Isle of Man case study, *Annals of Tourism Research*, 16, 377~398.
- Debbage, K.G., 1990, Oligopoly and the resort cycle in the Bahamas, *Annals of Tourism Research*, 17, 513~527.
- Foster, D.M. and Murphy, 1991, Resort cycle revisited: The retirement connecti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18, 553~567.
- Meyer-Aredt, 1985, The Grand Isle, Louisiana resort cycle, *Annals of Tourism Research*, 12, 449~465.
- Strapp, J.D., 1988, The resort cycle and second homes, *Annals of Tourism Research*, 15, 504~516.
- Weaver, D.B., 1990, Grand Cayman Island and the resort cycle concept, *Journal of Travel Research*, Fall, 9~15.
- Parker, P.M., 1992, Price elasticity dynamics over the adoption life cycle,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9, 358~367.
- Pearce, D.G., 1988, Tourism and regional development in the European community, *Tourism Management*, 9, 13~22.
- Rimmer, P.J., 1992, Japan's resort archipelago: Creating regions of fun, pleasure, relaxation, and recreation, *Environment and Planning A*, 24, 1599~1625.
- Robinson, G.W.S., 1972, The recreation geography of South Asia, *Geographical Review*, 62(4), 561~572.
- Squire, S.J., 1988, Wordsworth and lake district tourism: Romantic reshaping of landscape, *Canadian Geographer*, 32(3), 237~247.
- Tellis, G.J. and Fornell, C., 1988, The relationship between advertising and product quality over the product life cycle: A contingency theory,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5, 64~71.

The Life Cycle of Tour Destination Hot Spring in Korea

Cho, Sung Ho* · Lee, Kyung Ja**

Summary

When tour site is being used by people for the destination of tour, it has a life, or it will lose its life as a tour site.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based on Butler's theory, has chosen 46 hot spring spots in Korea which are legally assigned and presently running, and tried to analyze the life cycles, the stage of dispositional characteristics, and visitors' favoritism, and to try to find activating method which is not decline.

Out of 46 spots, 29 Places were found on the stage of development, which took high percentage, 4 were on the growing stage, 5 were on the mature stage, 5 were on the stagnation or decline stage and the rest 3 were on the stage of rejuvenation. Geographically, Korean hot springs were located on the plain or mountainous areas mostly, and less of them were on hills and coast lines. In water quality, most of places had simple water while the places with salt and sulfur contained water were marked low rate. The temperatures of hot spring water were variable between 25°C ~ 78°C, but the older hot springs were hotter than new ones. After observing the relationship between disposition characteristics and life cycles, the geographical locations and the matter of approach were found as majour influential factors to the life cycles

of them. The type of mountainous areas were observed slow progress in life cycle, due to traffic problem, until the road expansion or pavement work were done. Meanwhile, the suburban ones adjacent to big cities were favored by hot spring tourists due to their easy approach and easy traffic. The new born hot springs with such conditions have shown the fast growth.

As studied above, since the hot springs were supposed to be for recuperation and vacation, a hot spring with better recreational and accommodational facilities was more favored by tourists than the one with pretty interior decorations. It was because the tour purpose of people has been switched from single purpose to multi one.

Thus, the suggestion for activating a declining hot spring and bringing people in them is to develop new and attractive tour resources, expanding the related area, maintaining good quality of water, developing a complex site for long-term tour, developed traffic routs, hot spring festivals, utilizing adjacent tour resources, preparing public water supply system, and assigning as special tour zone.

Key words : hot spring, tour destination, life cycle.

*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atholic University of Taegu-Hyosung

** Lecturer, Catholic University of Taegu-Hyosung

